

서구아너스, 민관협력 복지사업 새 지평 열다

지난해 11월 고액후원자그룹 결성 100일 만 56명 확보·20억여원 모아 '복지틈새 제도' 마중물로 활용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희망되길"

광주 서구가 특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 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를 결성, 100일만에 후원자 56명을 확보하고 후원금 20억 3000만원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서구아너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이상을 일사납 또는 5년간 기부를 약정한 개인 및 기업·법인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구는 이 후원금을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청년, 장애

인 등 공공부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투입해 '복지 틈새 제도'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서구아너스는 지난 1월 첫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15세대(52명)를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씩 총 2600만원을 후원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100세대에 은누리상품권 20만원씩 지원했다.

이어 2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110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희귀질환자 돌봄 가족, 시각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매월 주제가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아너스의 선한 영향력은 또다른

기부 희망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서구는 서구청 1층에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서구아너스의 기부현황과 나눔 메시지를 실시간 송출하고, 즉석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 운영으로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서구아너스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7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구아너스 1호로 가입한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 서구아너스와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꿈이 되고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 원장, 문순자 한미건설(주) 대표 등도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서구아너스를 만나게

됐다"며 "우리의 작은 뜻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서구아너스의 후원으로 18년만에 중국 친정을 방문한 김순애씨는 "결혼 후 쌍둥이 낳고 키우면서 고향 방문할 여유가 없었는데 서구아너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친정 가족들을 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가 착한도시 서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뜻과 정성, 발걸음이 큰 감동과 커다란 행복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착한 영웅들과 함께 복지틈새 제도(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대상' 광산구, 전국 자치구 종합 1위

광주 광산구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1위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에 근거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성과와 실적을 평가한다.

광산구는 일자리·고용, 물가·소비자,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 등 8개 부문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가·소비자, 문화관광 2개 부문에서도 각각 최우수상(2위), 은상(4위)에 선정되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관왕'에 올랐다.

물가·소비자 부문에선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 2024년 기준착한가격 업소를 지난 해보다 50% 늘어난 75곳을 지정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고물가 시기 경제적 약자에게 1000원에 든든한 점심을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천원한끼 식당'도 5곳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 부문은 2회 연속 대성황을 이룬 광산뮤직ON페스티벌, 3만여명이 몰린 광산세계야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축제 육성이 성과로 꼽혔다.

김상철 기자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바꿉니다" 광산구, 보장 항목 일부 조정 등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2월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보장 나이를 확대했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보장 나이가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광주시와 중복되는 보장 항목인 '물놀이(익사)사고 사망' 항목을 삭제하고, 보험금 청구가 저조한 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상해 후유장애 보장 금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10일까지 1년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한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보험사(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지역 최초' 스마트 경로당 운영 복귀, 실버요가·방문케어 등

광주 북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경로당' 40개소를 광주 최초로 구축하고 오는 21일 개소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개소식은 40개 경로당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각 경로당에 설치된 비대면 영상 중계 장치를 활용해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포함 총 12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익숙한 경로당에서 취미 활동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북구는 지난해 6월 이용자 수가 많고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경로당 40곳을 선정한 뒤,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각 경로당에 비대면 영상 중계 장비와 교육용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 실버 요가,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등의 여가 프로그램과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체성분 분석기, 신장·체중 측정기, 혈압계, 혈당계, 자동 평형 검사기, 치매 검사기 등 6종의 장비를 활용한 기초 건강 검진 및 조기 치매 선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두암동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스마트헬스케어 거점센터'를 조성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도 스트레스 측정, 골밀도 분석 등 건강 상태 측정 및 결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여가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화재 대피 훈련 최근 아파트와 대형건물, 시장 등에서 겨울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아이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남구, 양림동 테마 투어 운영단체 공개 모집

건축예술·선교 등 3개 분야

광주 남구는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에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양림동 한바퀴' 테마 투어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건축·예술 투어', '선교 투어', '다크 투

어리즘' 3개 부문이며, 참가 자격은 광주에 소재한 문화·건축·관광·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운영단체 선정은 '사업단체 적격성', '사업 독창성 및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단체당 단일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신청 단체가 1곳일 경우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윤준명 기자

동구 "어린이 국가 유산 해설사 교육 참여하세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 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

광주 동구는 지역의 국가 유산을 알리는 '어린이 국가 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에 참여할 어린이를 21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 해설사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역 내 국가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3월8일부터 4월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구립도서관 책정원과 관내 국가유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지역의 국가 유산과 역사를 알아보는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 해설 실습 등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료한 어린이는 오는 4월25~26일에 열리는 광주 국가 유산 야행 '들의(義) 시간'에서 '동구 어린이 국가 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동구 거주 또는 관내 초등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의 특색을 살린 테마 투어 프로그램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학교 재학생 4~6학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사)광주문화나루 누리집(gjnaru.com)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에 전화(062-608-2403 또는 062-672-6966)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국가유산을 해설함으로써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